

가정의 달에 돌아본 ‘위기의 가정’ 교회만이 대안

가정사역 통해 가족의 관계 강화와 회복에 초점 맞춰야

우리사회는 가정해체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개인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상승했다지만 이와 함께 결손가정 혹은 가정의 해체로 인해 사회 곳곳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근래 들어서는 기존 가족의 개념을 대신해 한 부모가정, 무자녀가정, 동거가정, 그룹 홈, 미혼모가정, 동성애커플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을 극복할 방안으로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제시한다.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다.

가정의 해체로 인해 심각한 것은 어린 자녀의 유기를 비롯한 노인 부모의 방치와 청소년 자녀의 비행 및 범죄 연루 등 사회문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결상단소 가정문제전문가 정우담 목사는 “과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정의 해체 현상이 불거져 나왔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곧 남성중심의 부부 관계에서 점차 부부 평등을 추구하는 관계로 변하고 부



부 갈등도 자연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또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인한 가정 형태의 변화도 있다”면서 결국 가정의 일치성 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면서 가족의 해체는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기독교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할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제시한다. 우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은 조직했다”고 언급해 가정의 해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공동체로서의 참 모습을 잃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가족의 혈연관계 보다는 먼저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 공동체로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핵심이 부부관계에 맞춰져 있는만큼 목회자의 설교도 건강한 부부 역할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정 사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부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부부 중심의 성경공부를 비롯한 부부 수련회와 부부 중심의 봉사 등이 있다.

이밖에도 교회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해체된 가정의 구

성원들과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 차원에서 이혼자나 싱글여성들의 모임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기독교가정문제에 대한 한 전문가는 “해체되고 있는 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준비도 없이 부부가 돼 갈등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는 가정이 해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식 준비에 바빠 정작 결혼의 의미를 놓치기 쉬운 결혼예비자를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해 결혼과 가정의 신앙적 의미를 되새겨 안정된 신앙가정의 출발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요즘, 가정을 살리는 일이 곧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 가정 사역이 교회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때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가정 사역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가정을 한 단위로 보고 가정을 통해 사역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가족 최고의 유산은 신앙

가정예배 통해 진정한 가족권위 나와



“아빠 오늘은 내가 기도할래!” 전원영 안수집사의 막내딸 서찬(4)이가 오늘도 아빠를 졸라 가정예배의 시작기

도를 한다. 구역예배를 드리거나, 친인척 모임이 있을 때에도 서찬이는 기도문을 자청하고 나선다. 초등학교 5학

년인 큰딸 서현이는 성경에 관한 한 민물박사다. 성경의 인물을 줄줄이 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자신의 비전까지 찾아가고 있다.

전원영 집사 부부는 자녀들이 신앙적으로나 지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요즘은 모태신앙이 ‘뚝해신앙’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앙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현실에서 아이들은 신앙으로 자라주고 학업에도 열중하고 있어 마냥 대견할 따름이다.

전원영 안수집사 부부는 말씀교육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 집사는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자녀가 어릴 수록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나 순종은 탁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것은 신앙 밖에 없으니 어려서부터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의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들을 만들이 어린이 사랑, 부모공경, 선생님 존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달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은 세우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오늘날 기독교 가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합당한지 의문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전원영 안수집사의 가정예배, 말씀묵상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 오는 것은 아닐까?



말씀의 초대 | 느헤미야 6:1~2, 5

믿음이 이긴다!



박희석 목사
진주나들목교회
경남지방회장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에이즈’ 목사에 의해 작사 되고, ‘생키’에 의해 작곡된 찬송가입니다.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확신이 듭니다. 어떤 확신이겠어요? “기독교는 이김의 종교입니다.” 이 이김은요, 어떤 강력한 힘과 무기가 아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기록된 본문에서도 이김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믿음의 이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김을 보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기록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이곳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이라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원수들’이라 합니다. 원수는 히브리어로 ‘오에브’, ‘적’을 의미하는 데, 아주 포악한 사상군들과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어느 때에 나타났는지를 아어진 문맥 안에서 보입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벽 재건에 있어서 문짝만 달면 완성된 시점에 누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록된 본문 2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산발랏과 게셀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늘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2절 말씀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이것을 찾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을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하드’, ‘하나됨, 연합됨, 함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살며시 다가와 ‘우리 서로~’ 라고 말하는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인지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참고 성구(고후 6:14~15)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안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짝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둠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사도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손해를 끼치며, 육체를 해하며, 영혼까지도 훔쳐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속임수인 ‘서로’라는 말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2절 하) 느헤미야는 저들의 속임수를 완벽하게 읽고 있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3절) 느헤미야의 반응은,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 너희에게로 가겠느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이겠어요? 속이고자 하는 이들, 넘어 뜨리고자 하는 이들은 한번으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기록된 본문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이렇듯 이미 들켰음에도 네 번을 넘어, 다섯 번이나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무엇으로 이기라는 것입니까?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왕하 6:16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2025년 해외선교사위원회

선교사위원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 시 : 2025. 5. 21.(수) ~ 23.(금)

■장 소 : 오크밸리리조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56

■대 상 : 예성총회 파송선교사

■신청및 문의: 총회 선교국 & 선교국장

■신청방법 : Tel: 070-7132-0030

E-mail: world.sungkyul2024@gmail.com

■신청마감 : 2025.5.14.(수)까지

■주 최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주 관 : 해외선교위원회

해선위 위원장



강명국 목사
늘사랑교회

총회위원장



노은식 목사
주님안아네교회

부위원장



최상현 목사
행복한교회

부위원장



손영삼 목사
예수의교회

부위원장



라건구 목사
복음정교회

사무총장



이상복 목사
반려교회

총무



000 목사
000000교회

서기



전영호 목사
서삼교회

부서기



심상훈 목사
고은교회

회계



000 목사
000000교회

부회계



서영원 목사
부평성산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